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모트렉스(118990)

운송장비·부품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백하영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트렉스(118990)

미래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기업정보(2022/05/16 기준)

대표자	이형환
설립일자	2001년 10월 01일
상장일자	2017년 08월 04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자동차용 신품 조항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주요제품	IVI 시스템, RSE, 콘크리트 펌프카

시세정보(2022/05/16 기준)

현재가	33,3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2,753억 원
발행주식수	8,209,812주
52주 최고가	36,550원
52주 최저가	25,650원
외국인지분율	2.43%
주요주주	
이형환 외 7인	39.39%
자사주	1.25%

■ Automotive HMI 기술을 보유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업

모트렉스(이하 동사)는 2001년 설립되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Automotive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을 바탕으로 IVI(In Vehicle Infotainment) 제품과 RSE(Rear Seat Entertainment), 차량 내 공기청정기 등 전장 제품을 PIO(Port Installed Option)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2018년 전진건설로봇(舊전진중공업)을 인수하며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으로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며 매출을 증대해 왔으며, 2021년 4,367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며 최대 매출을 경신하였다.

■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과 차량 인포테인먼트의 부상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차 확대 등을 배경으로 자동차 산업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편의성, 안전성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객에게 주행에 필요한 주변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IVI)에 대한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래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IV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 목적기반 모빌리티 IVI 플랫폼과 ADAS 제품 개발

동사는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전장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군집 자율주행 과제에 참여하였으며, 디지털 클러스터, Dashcam 등을 개발하며 ADAS 전장 부품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운전하지 않는 탑승객이 이동 중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카페, 식당, 의료, 주거시설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모빌리티인 PBV(Purpose Built Vehicle)가 주목받고 있다. 동사는 목적기반 모빌리티의 IVI 플랫폼을 차세대 제품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	3,136.5	47.4	-26.5	-0.8	-384.5	-12.3	-33.1	-8.7	409.3	-5,223	13,964	N/A	0.8
2020	3,538.1	12.8	106.4	3	-179.4	-5.1	-17.5	-4.1	289.4	-2,392	14,670	N/A	2.2
2021	4,367.0	23.4	353.2	8.1	115.6	2.6	9.4	2.6	240.0	1,469	16,901	22.3	1.9

기업경쟁력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술력 보유

- 국가별 최적화된 커넥티비티 기술 적용
- 디지털 그래픽 기술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오토 인증 보유
- PIO 방식으로 IVI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

PBV 솔루션을 위한 IVI 플랫폼 기술

- IVI 시스템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목적기반 모빌리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를 개발 중
- DTG 기능을 탑재한 AVNT 개발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OTA 환경 구축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주요 사업 분야 및 관련 기술

- 주요 사업: 전장 부품과 전진건설로봇으로 구성
- 해외 10개국 현지법인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87개 국가에 50여 개 차종에 185개 모델 제품 공급
- 전장 부품: Automotive HMI 기술을 바탕으로 IVI, RSE, 공기청정기 등 전장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
 - IVI: 오디오, AV, AVN, 등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제품
 - RSE: 고속버스, 기차 등의 대형운송 수단에 공급을 확대하여 승객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승차 환경 제공
 - 공기청정기: 텔레메틱스 기능과 UVC LED 적용
- 전진건설로봇: 전진건설로봇 인수하며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 진출

동사의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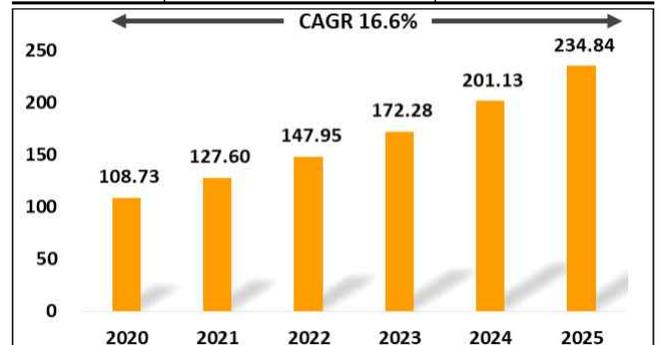


시장경쟁력

세계 스마트카 시장 규모(출처: MarketsandMarkets)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편의성, 안전성,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는 일종의 복합공간으로 변화
- IVI는 인공지능과 텔레메틱스를 이용해 전화 연결, 음악 감상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의미를 확장 중

년도	시장규모	CAGR
2020년	108.73억 달러	16.6%▲
2025년	234.84억 달러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ESG 채권 100억 원을 발행함.
- 녹색 채권은 자율주행 전기 택시 AVNT, 수소전기 트럭 HMI 등 친환경차 전장부품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조달될 예정으로, 동사는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에 동참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함.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취득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을 제공 중임.
- 동사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하계휴가 지원, 지속적인 교육투자,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상공회의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근감사를 선임함.
- 동사는 금융팀을 통해 사외이사와 감사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동사는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으로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 현황

미래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동사는 Automotive HMI 기술을 바탕으로 IVI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항구에서 차량 선적 전 제품을 장착하는 PIO 방식으로 제품을 제공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2021년 설립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01년 10월 설립되어 2017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Automotive HMI 기술을 바탕으로 IVI 시스템, RSE, 차량 내 공기청정기 등 각종 전장부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공조기기 부품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율주행, 차량의 전장화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 흐름에 따라 CNS(Car Navigation System) 사업을 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고 미국, 브라질, 멕시코, 중국 등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각국에 PIO 방식으로 완성차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후, 2018년 전진건설로봇을 인수하며 각종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으로 진출하였다. 최근, 특수목적 모빌리티인 PBV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사는 목적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차세대 제품군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ESG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CES 2020에서 차량용 커스텀 클러스터로 혁신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CES 2021에서도 컵홀더형 자외선(UVC)살균 무선충전기 제품으로 혁신상을 받으며 2년 연속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어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동사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를 증대해 왔으며, 창립 20주년인 2021년 역대 최대 매출인 4,367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1] 동사의 사업 영역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 현황

동사의 최근 공시자료(2022.04)에 의하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이형환 대표이사로 28.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를 창업하기 전 1986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자동차에 근무한 바 있다.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송은희)이 10.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 자사주 1.25%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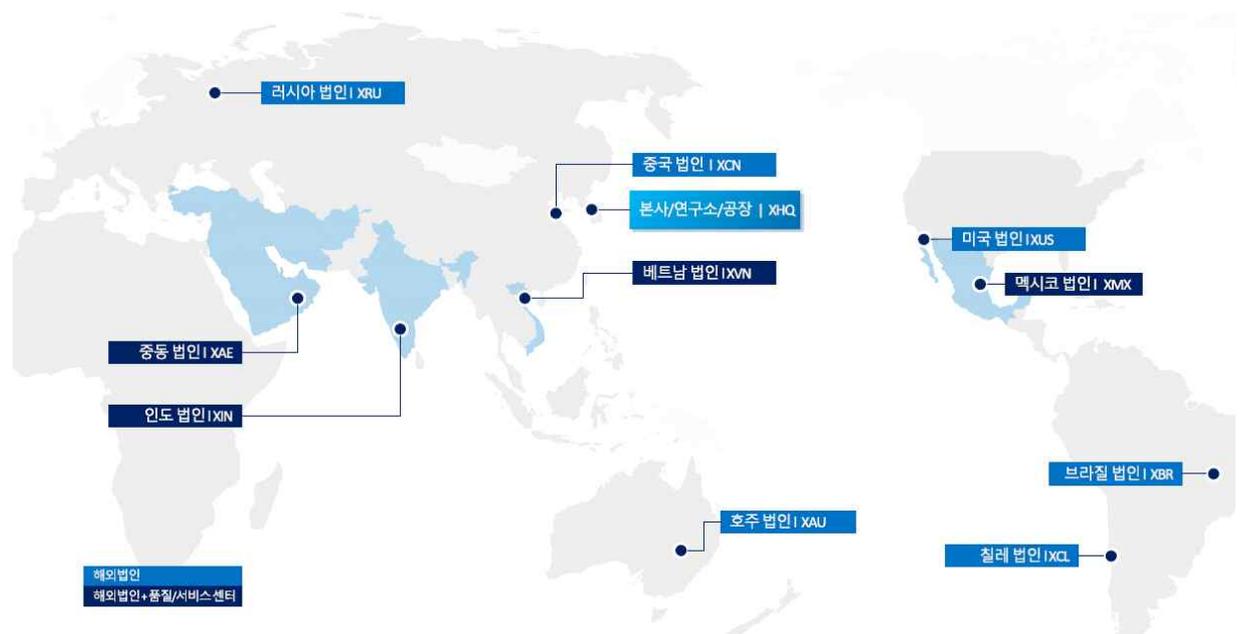
[표 1]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이형환	2,367,096	28.68
송은희	826,446	10.01
자사주	103,515	1.25
기타	4,947,178	60.06
합계	8,254,235	100.00

*출처: 최근 공시자료(2022.04),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2009년 4월 모트렉스 R&D Center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천안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동사는 주로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이스라엘, 이란 등의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 해외 10개국 현지법인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87개 국가에 50여 개 차종에 대한 185개 모델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88.8%를 수출 매출에서 실현하고 있으며 2016년 무역 일역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그림 2] 동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출처: 동사 IR 자료(2022.02)

■ 동사의 주요 사업 및 제품

동사의 사업은 크게 전장 사업과 전진건설로봇으로 구성된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AV, AVN 등의 IVI 시스템은 차량 탑승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오락성을 가미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IVI 제품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RSE 제품을 개발하여 SUV와 RV 차량 및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커스텀 클러스터(오로라)와 고속버스, 철도, 택시 등 특수목적 이동수단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의 HW, SW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제품 외 Dashcam, 차량 내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사가 제품을 공급할 때 채택하고 있는 PIO 방식은 선적 전 항구에서 완성차 기업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 사양의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OEM 방식 대비하여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IVI 제품은 그 특성상 판매되는 국가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하며 트렌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획일화된 제품을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동사는 PIO 방식을 채택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IVI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진건설로봇 부문의 제품은 그 기능에 따라 콘크리트 펌프카(Concrete Pump Car), 숏크리트(Shortcrete),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라인 펌프(Line Pump), 스테이셔너리 펌프(Stationary Pump)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은 콘크리트 펌프카로 이는 콘크리트를 원하는 장소에 이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전진건설로봇 사업은 국내 건설사 및 건설장비 임대기업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주로 딜러를 통해 콘크리트 펌프카나 상부 구조물인 콘크리트 펌프만 따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동사의 사업 부문

구분		제품
전장	I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Audio Video) • AVN(Audio Video Navigation) • AVNT(Audio Video Navigation Telematics) • RSE(Rear Seat Entertainment)
	차세대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 Cluster, Custom Cluster • Cluster 어플리케이션 제어기
	AD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shcam • AIDA(Automotive Intelligent Docking Adaptor)
	특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S(Fleet Management System)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용 공기청정기(Air Purifier)
전진건설로봇	건설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펌프카(Concrete Pump Car) • 숏크리트(Shortcrete) •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 라인 펌프(Line Pump) • 스테이셔너리 펌프(Stationary P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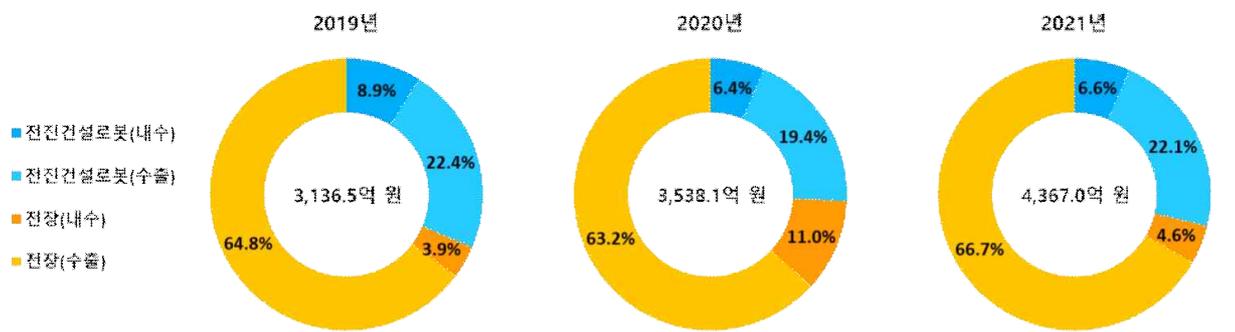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매출 현황

동사의 매출액은 2019년 3,136.5억 원에서 2020년 3,538.1억 원, 2021년 4,367.0억 원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은 주력 제품인 IVI 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와 전진건설로봇의 복미 매출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하며 설립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수출 매출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86.2%로 확인되며, 전장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19년 68.7%, 2020년 74.2%, 2021년 71.3%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동사의 최근 3개년 사업별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2021.12), NICE디앤비 재무성

동사의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제품은 AV와 AVN으로, 2021년 기준 두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로 절반 이상의 매출이 두 제품으로부터 시현되고 있다. 2020년부터 매출이 발생한 공기청정기 매출 비중은 2020년 4.64%, 2021년 6.21%로 확인되며, 적용되는 차종을 확대하여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전진건설로봇 부문에서는 2021년 기준, 콘크리트 펌프카 매출 비중이 86.2%로 대부분의 매출이 해당 제품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림 4] 동사의 최근 3개년 제품별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2021.12), NICE디앤비 재무성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중견기업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하였다. 동사는 ESG 채권 중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사용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녹색 채권을 KDB산업은행을 통해 무보증 사모사채 형태로 100억 원을 발행했다. 조달된 자금은 자율주행 전기택시 AVNT, 수소전기트럭 HMI 등 친환경차 전장부품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탄소 저감에 동참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취득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전사 정기 워크숍 개최, 지속적인 교육투자, 각종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사는 성과 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하계휴가를 제공하고 제휴 호텔 할인, 사내 동호회 운영 등을 지원하여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본사에 휴게실과 카페 테리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에는 헬스장, 기숙사,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임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어학 시험 응시로 및 신입사원 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리더십 강화 교육 등 각종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하여 임직원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동사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복리후생 제도,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8년 대한상공회의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는 여성 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16.9%로 동 산업(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인 16.6%에 상회한다.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67.7%이며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96.8%로, 각각의 동 산업 평균인 63.4%, 58.3% 이상으로, 동사는 성별에 따른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기, 육아기에 단축 근무 및 산전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전체)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305	296,510	4.5	12.0	54,686	52,764
여	62	58,843	4.3	7.0	37,002	33,432
합계	367	355,353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02),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S) 부문에서,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근감사를 선임하였다. 동사는 사외이사와 감사가 전문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금융팀을 통해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동사는 주주 의결권 지원제도로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으로서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표 4]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28.68
사내/사외	2/1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58.90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동향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스마트카 및 IV 시장의 성장

미래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편의성, 안전성,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변모하며 관련된 시장인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과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4차 산업 혁명으로 발전하는 ICT 기술과 대두되는 환경 이슈에 따른 친환경차 확대 등을 배경으로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1960년대 메르세데스 벤츠를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뜻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미래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신기술인 AICBM(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Cloud: 클라우드, Big Data: 빅데이터, Mobile: 모바일)을 접목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신업체, IT 기업,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등의 정책을 공개하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COVID-19로 인한 소비환경 변화로 무인 차량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화물, 음식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량을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목적에 따라 운행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대되며 생활공간, 대중교통, 의료 서비스, 화물 운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활용하는 특수목적 이동수단(PBV)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림 5]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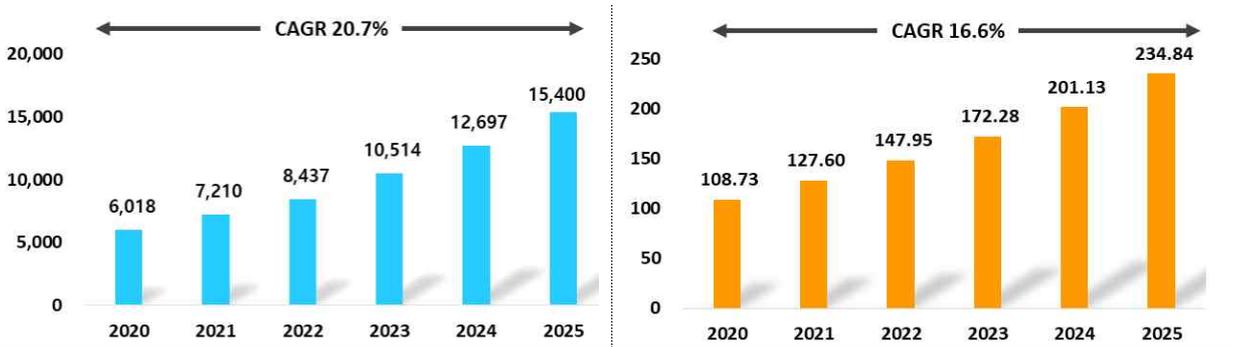


*출처: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한국수출입은행 2020 이슈리포트(2020.12)

■ 스마트카 시장확대에 따른 IVI(차량 인포테인먼트)의 성장

스마트카는 자동차에 인공지능, 통신, 센서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기술을 융합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스마트카 산업은 디스플레이, 통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파급효과를 지니며 기술 및 자본의 관점에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산업이다. MarketsandMarkets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스마트카 시장은 2020년 6,018억 원에서 연평균 20.7%로 성장해 2025년 1조 5,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시장의 경우, 2020년 108.73억 달러 규모에서 16.6%로 성장하여 234.84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국내 스마트카 시장규모(좌) / 세계 스마트카 시장규모(우) (단위: 년, 억 원, 억 달러)



*출처: Connected Car Market, MarketsandMarke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편의성, 안전성과 함께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IVI,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존재한다. 인포테인먼트는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탑승객에게 주행에 필요한 주변 환경의 정보와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미디어 플레이어, 네비게이션, 통신 네트워크 등이 이에 속한다.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동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애플의 카플레이(CarPlay)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며, 탑승자는 경로 안내를 비롯한 문자, 전화 연결과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차량 안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AR 및 VR 기술을 통해 탑승객에게 실감형 콘텐츠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는 더 이상 순정네비가 아니라, 차량 내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며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그림 7]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메르세데스 벤츠는 CES 2021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맞춤형 편의 기능과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는 56인치 크기의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하이퍼스크린을 공개하였으며, 하만인터내셔널은 49인치 QLED 디스플레이와 JBL 음향 시스템을 장착하고, 뒷좌석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화상 회의 기능도 제공 가능한 디지털 콕핏 2021을 공개하였다. 국내외 완성차 제조기업과 부품 공급기업들의 활발한 IVI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래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IV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그림 8] 디지털 콕핏 2021(좌) / MBUX(우)



*출처: 삼성전자 뉴스룸, Mercedes-Benz

■ 경쟁업체 현황

동사의 주력 사업인 차량 인포테인먼트 사업은 스타트업인 드림에이스부터 대기업인 네이버, 엘지전자 등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동사와 매출 외형이나 사업 형태가 유사한 기업으로는 (주)대성엘텍,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가 있다.

(주)대성엘텍은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차량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베라리스와 함께 ADAS를 개발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인 OTA, 자동차 보안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는 ADAS, HUD, 레이더 영상기록장치 등을 개발해 네비게이션, 블랙박스에 편중되던 매출 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차량의 기반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BMW, 아우디, 벤츠 등의 기업을 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주요 경쟁사 현황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기업	개요	특징
 MOTREX 모트렉스(주)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 상장사 설립: 2001년 10월 1일 상장: 2017년 8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매출: 4,367억 원 IVI 시스템(AV, AVN), RSE 현대자동차 그룹 중심의 매출 구조
 DAESUNG ELTEC [대성엘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 상장사 설립: 1949년 6월 5일 상장: 1995년 5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매출: 3,331억 원 IVI 시스템: AVN, Audio, AMP 현대자동차 그룹, 르노 그룹, 알파인
 Mobile Appliance [모바일어플라이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 상장사 설립: 2004년 4월 19일 상장: 2017년 2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매출: 477.8억 원 블랙박스, HUD, ADAS, 네비게이션, IoT BMW, 아우디, 벤츠 등 고객사 보유

*출처: 각 사 홈페이지,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Ⅲ. 기술분석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군 확대 및 M&A로 사업 영역 확장

동사는 IVI 시스템을 중심으로 RSE, 공기청정기, Dashcam 등의 전장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세대 제품군으로 목적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을 위한 IV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전진건설 로봇을 인수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과 실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HMI 및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술 보유

Automotive HMI 기술은 운전자와 차량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이를 통해 운전자와 차량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속도계, 방향지시등, 경고등 등의 차량의 물리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클러스터나 라디오, 네비게이션 등을 포함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HMI에 해당한다.

동사는 이러한 HMI 기술을 바탕으로 IVI 제품을 완성차 기업에서 요구한 스펙에 맞춰 개발하여 PIO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IVI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기능을 위해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가별 최적화된 커넥티비티 기술을 적용하여 현지에 적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환경을 개발하고 있다.

IVI OS(Operating System) 시장에는 PC의 윈도우와 맥,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와 iOS처럼 IVI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구글, 애플, 인텔, 블랙베리 등 다수의 IT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동사는 OS에 종속되지 않는 커넥티비티 기술로 제품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동사는 IVI 시스템을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으로 차량 내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공급하고 있으며, 감성 주행을 위해 공조 기능을 조절하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였고 독자적인 디지털 그래픽 기술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HMI를 통해 승객에게 최적화된 승차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9] 동사의 커넥티비티 기술과 국가별 현지 최적화



*출처: 동사 IR 자료(2022.02)

동사는 IVI 제품 이외에 Dashcam, 공기청정기와 같은 다양한 전장 제품을 공급하여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제품은 컵홀더 타입, 시트백 타입, 암레스트형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하며, 인도 시장의 완성차 기업에 제품을 제공 중이다. 동사의 공기청정기 제품은 텔레메틱스 시스템과 연동하여 탑승 전 가동할 수 있으며, UVC LED가 적용되어 차량의 실내 공기의 세균,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파생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대형 운송수단의 서비스 고급화 요구에 따라, 동사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열차나 고속버스, 중장비 등을 대상으로 RSE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RSE를 통해 승객에게 인터넷, 유튜브,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차내 방송, 이동 경로 등을 제공하여 탑승자와 운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승객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10] RSE 시스템(좌) / 차량 내 공기청정기(우)



*출처: 동사 IR 자료(2022.02), NICE디앤비 재구성

■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솔루션을 위한 IVI 플랫폼 기술 개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운전하지 않는 승객이 이동 중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카페, 식당, 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운행되는 다목적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관련된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PBV는 그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각 PBV에 맞는 IVI 제품 개발 및 양산 능력이 필요하다. 동사는 AV, AVN, RSE 등 IVI 사업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목적 모빌리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목적기반 모빌리티를 차세대 제품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성능 HW 플랫폼과 모빌리티별 요구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SW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관련되어 영업용 차량에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DTG(Digital Tacho Graph) 기능을 탑재한 AVNT와 무선으로 SW를 업데이트하는 OTA(Over The Air)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11] PBV Solution을 위한 IVI 플랫폼 기술 개발



*출처: 동사 IR 자료(2022.02)

■ 전진건설로봇 인수로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존 사업과 시너지 창출

동사는 2018년 전진건설로봇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였다. 전진건설로봇의 주 제품은 콘크리트 펌프카로, 그 외 플레이싱붐, 쏫크리트, 라인 펌프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진건설로봇은 건설 특장차 제조업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콘크리트 펌프는 원거리 건축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믹스를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여 고압으로 송출하는 기계로 붐, 트럭, 하부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펌프를 차체에 올린 건설 중장비를 콘크리트 펌프카라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트럭 브랜드 및 차종, 붐 길이, 하부 프레임 타입의 선택이 가능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제품으로 동사는 국가, 고객별로 요구된 사양에 따라 다양한 제원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판매 후 부품 공급 및 A/S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전진건설로봇 인수를 통해 건설장비 분야로 IVI 제품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기존 사업과 시너지와 실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진건설로봇 사업 부문의 2021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3.4%로 수익성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창출능력이 양호한 바, Cash Cow의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가 향후 8년간 인프라 관련 2.25조 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함에 따라, 건설장비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며, 2021년 3분기 기준 전진건설로봇의 매출의 49.7%가 북미향인 것으로 확인되어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전진건설로봇의 실적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표 6] 동사의 전진건설로봇 제품군

ESS 장비	내용	사진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중/고층의 시공면에 이송 및 타설하는 장비	
쏫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시공면에 타설하는 장비(측면/천정 시공시 주로 사용)	
플레이싱붐	초고층 건축현장에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이송 및 타설하는 장비	
라인펌프	자가차량으로 이동하는 초고압용 콘크리트 펌프	
스테이셔너리 펌프	견인차량으로 이동하는 초고압용 콘크리트 펌프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동사 IR 자료(2022.02), NICE디앤비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12]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이런 경제 제재 등으로 저하된 재무지표, 꾸준히 개선 추이

2019년 이런 경제 제재로 인한 관련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나, 비경상적인 비용부담임에 따라 2020년 적자 폭이 축소되었고, 2021년 매출 증대, 수익성 큰 폭으로 개선 및 흑자 전환, 재무안정성 지표 개선 추이를 보였다.

■ 전장사업 부문, 경기변동 민감성을 PIO 생산에 따른 국가 다변화로 보완

동사는 전장사업 부문과 전진건설로봇 부문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전장사업 부문을 구성하는 IVI는 인간의 아날로그적 인지 방법과 기기의 디지털 처리 방법을 호환하는 HMI 기술을 정보통신 기술 등이 융합된 스마트카와 접목한 기술로, 차량 관련 정보 제공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IVI의 경우 애플 카플레이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하여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가 상호작용하는 형태로도 시현되며, 동사가 보유한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각종 스마트기기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 등 다방면으로 연계 가능하다. 이외 동사는 블랙박스, 순찰차용 통합 디바이스 등 운전 보조 장비로 활용되는 ADAS 제품, 차량의 위치, 경로, 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저장,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 경로 이탈방지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인 FMS,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도 제공하고 있다.

동사가 제공하는 IVI 제품의 주요 수요처는 HMC, KIA 등 국내외 자동차 업체가 있으며, 동사의 ADAS 제품 외 여타 사업 부문의 주요 수요처는 코레일, SRT, 경찰청 등 관급 거래처와 렌터카, 택시 등 영업자산으로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민간업체가 있다. 전장사업 부문은 전방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산업이 자동차 산업임에 따라 통상적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이 존재한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에서 사양을 결정하는 Before Market과 IVI 제품 공급업체가 사양을 결정하는 After Market의 절충안인 PIO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양한 사양을 즉각적으로 반영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다변화 또한 가능해졌으며, 상대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꾸준한 인도, 멕시코, 브라질, 터키 등의 신흥국에도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고, 다년간의 물량을 선 계약하여 출하하는 형태로 경기변동 위험을 보완하고 있다.

전진건설로봇 부문 사업은 2018년 전진건설로봇을 인수하며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며, 고층건물 또는 원거리 건축 작업 시 필요한 콘크리트 믹스를 고압으로 송출하는 콘크리트펌프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부문이다.

사업 부문별, 2021년 기준 매출 비중은 전장사업 부문을 구성하는 AVN, AV, RSE, 공기청정기 등(주요상표 Motrex)이 71.3%, 중공업 부문(주요상표 JUNJIN)이 28.7%를 차지하였다.

■ 기업 인수로 큰 폭의 외형 확대를 나타낸 뒤, 사업경쟁력으로 연이어 매출 확장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전년 대비 16.5% 감소한 2,128.6억 원을 나타냈으나, 2019년 전진 건설로봇 인수로 인해 연결기준 매출 외형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47.4% 증가한 3,136.5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0년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및 ADAS 제품 판매 급증으로 인한 실적 호조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3,538.1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동사는 IVI 글로벌 판매 증가 및 자회사 전진건설로봇 북미 시장 매출 증대의 영향으로 2021년 전년 대비 23.4% 증가한 4,36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성장 폭 또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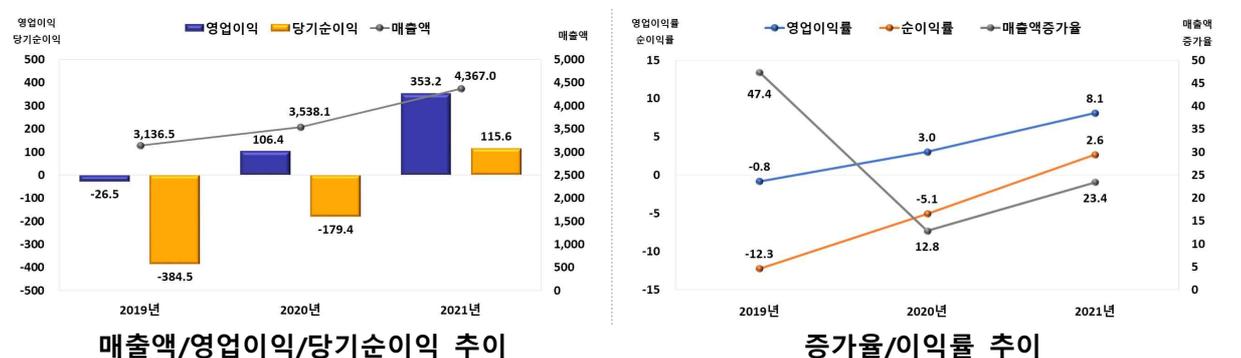
■ 이란 경제 제재 등으로 적자 기조였으나, 2021년 양호한 수익성 기록하며 반전

2019년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 436.3억 원을 상회하는 판매비 462.8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 손실 26.5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자율주행 ADAS 핵심기술 연구개발비 부담 가중 등의 영향이 존재한다. 이외 영업 외 비용으로 이란의 경제 제재로 인한 이란 사업 부문 개발비 손상차손 인식, 중국 자동차 시장 침체로 당기손실 382.5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20년 전년도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경상연구개발비 비용부담이 당기 축소되어 영업수지가 흑자 전환하였으며, 영업이익 106.4억 원, 매출액영업이익률 3.0%를 기록하였다. 다만, 2019년 전무하였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한 영향으로 금융 원가 부담이 가중되었고, 당기 손실 179.4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동사는 2021년 IVI 산업의 글로벌 시장 내 활황 기조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정성 경비 부담은 완화되었으며, 마진율이 양호한 제품 판매 비중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2020년 106.4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353.2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외 영업외수지는 금융비용부담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이 매출액영업이익률을 하회하였으나,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며 매출액순이익률 2.6%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은 매출액보다 더 큰 폭의 개선을 나타내었다.

[그림 13]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높은 부채 부담 지속 중이나,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지표는 개선 추이

동사는 2019년 말 부채비율 409.3%, 자기자본비율 19.6%를 기록하였다. 2020년 8월 전환사채(80.0억 원) 및 교환사채(40.0억 원) 발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 중 금융권 차입금 상환, 2020년 8월 자기주식처분(40.0억 원), 2020년 3월 및 10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발행 당시 사채의 권면 158.0억 원, 2020년 10월 29일 기준 미전환사채 잔액 18.9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0년 말 부채비율 289.4%, 자기자본비율 25.7%를 기록하며 부채 부담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과중한 부채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2021년 8월 전환청구권 행사(59.4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2월 말 동사의 부채비율은 240.0%, 자기자본비율 29.4%를 기록하였고 재무 구조 개선 추이를 지속하였다.

[그림 1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기타 이슈

동사는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1주당 가액 100원을 500원으로 병합하는 주식 병합을 결정하였다. 주식 병합 일정에 따라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였으며 신주권 상장일은 4월 29일이고, 보통주 4,127만 주를 825만 주로 액면 병합하였다.

한편, 동사는 2022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5억 원 규모(보통주 44,423주)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동사는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으며, 소각 예정일은 2022년 5월 9일이다.

[표 7]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3,136.5	3,538.1	4,367.0
매출액증가율(%)	47.4	12.8	23.4
영업이익	-26.5	106.4	353.2
영업이익률(%)	-0.8	3.0	8.1
순이익	-384.5	-179.4	115.6
순이익률(%)	-12.3	-5.1	2.6
부채총계	3,570.6	3,166.9	3,197.4
자본총계	872.4	1,094.3	1,332.3
총자산	4,443.0	4,261.2	4,529.7
유동비율(%)	116.7	145.9	128.9
부채비율(%)	409.3	289.4	240.0
자기자본비율(%)	19.6	25.7	29.4
영업현금흐름	192.2	311.3	235.8
투자현금흐름	-323.2	-341.7	97.8
재무현금흐름	191.9	-47.0	-254.5
기말 현금	211.7	155.8	233.3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국가 다변화된 판매 경로와 IVI 산업 발전 및 신성장 동력 간 시너지 효과 기대

동사는 다양한 사양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생산 구조와 현지 최적화된 폰 커넥티비티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환경 개발로 국가 다변화된 판매 경로를 구축하였으며, ADAS 전장 부품을 개발하여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 동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IVI 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접목

동사는 다양한 사양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PIO 생산 체계를 갖추어 국가별 최적화된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국가별 주요 Map 사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에 특화된 폰 커넥티비티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환경을 개발하고 있다. 동사의 AV, AVN, AVNT 제품은 이미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RSE는 고속버스, 열차를 선두로 공급 중으로 양호한 사업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동사는 이와 같이 시장에 유통 중이거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IVI 기술 및 제품군을 나라별 최적화된 사양에 맞게 제품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와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 중동, 인도 등 해외 10개국 현지법인을 통해 87개 국가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 중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의 신흥국의 경우 전장 사업 부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기변동 민감성을 보완해주고 있다.

■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혁신 제품 및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동사는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DAS 전장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군집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클러스터 개발 및 자율주행 HMI를 적용하였으며, 2020년에는 디지털 클러스터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동사는 전방 및 실내 녹화 기능과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영상 원격 라이브 기능을 제공하는 Dashcam 제품 개발하여 일본 완성차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율주행 시대의 필수 품목인 ADAS 전장 부품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 확장성과 고부가가치 발생이 예상된다.

[그림 15]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신규 제품군



Digital Cluster



Dashcam



Around-View Monitoring



Rear-View Camera

*출처: 동사 IR 자료(2022.02)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한화 투자증권	Not Rated	-	2022.0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실적 호조의 주요인은 인도向 셀토스 등에 탑재된 고부가 AVNT 판매 증가,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 매출 성장, 양호한 건설경기 등으로 파악 ■ '22년 연결 매출액 두 자릿수 성장, 수익성 전년 수준 유지(원재료/물류비 강세 감안)를 목표 ■ 진출한 시장이 성장할수록 대형 IVI 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 PBV 시장에서는 선진국·내수向 차량이더라도 물량이 많지 않다면 다품종·소량생산에 특화된 동사에게도 주주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 존재 ■ 실적 턴어라운드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PBV 시장 내 역할 확보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6]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5월 3일)